

부모와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의 뇌' 를 알아야 한다

이지현 | 번역가

'명문대 들어가기'가 맹신적 종교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 시장은 불황을 모르고 있다. 학교에서 학원, 공부방으로 그리고 또 과외로,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아 붓고, 학부모들은 어려운 가게 형편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지만 참으로 의아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종종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이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아이들을 잘 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우리가 아이들을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 속에서 나는 《위기의 아이들》이란 책을 접했다. 교육에 대해 논하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왜 아이들이 생각할 줄 모르는가?' 라는 부제를 접했을 때, '바로 이 책이다' 라는 직감을 받았다.

이 책의 저자는 30여 년 동안 교육자로 일하며 연구를 병행해 온 학습심리학자다. 그녀는 특히 여러 과학적 실험결과들과 광범위한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학습과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뇌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삼십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우리 아이들의 성장환경이 아이들의 '뇌'와 '학습 태도', '사고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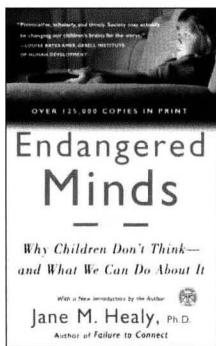
저자가 가장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직 그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 증명된 것이 없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등-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고, 그 결과 다음 세상을 책임져 갈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가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뇌와 좌뇌가 골고루 자극을 받으며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현재 환경은 지나치게 좌뇌 편향적이라고 지적한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은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보며 내지 친구 삼아 자라고, 아이들의 여리고 예민한 뇌는 말초적이고 시각적 자극에 주로

English

의존하는 이런 매체들에 길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청자를 잡아두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적 화면을 내보내는 텔레비전 같은 매체에 적응이 되면 아이들은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자극의 부족으로 불안해하면서 한 가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의결핍 장애'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함께, 상호적인 대화와 인간적 교류의 부족으로 아동들의 언어적 능력 또한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문제다. 인간의 언어능력이라는 것은 사고전개와 문제해결에 기반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 심각성은 자못 파국적이다.

저자는 문제점과 함께 대책 또한 제시하는 책임감과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뇌'를 이해하지 못하면서(학습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저 아이들을 학원으로 과외로 내몰고, 죽어라 공부시키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깨닫게 해준 이 책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유행과 인기를 틈타 '난 이렇게 했다-아니면 말고' 식의 피상적인 '공부 방법' 류 서적 열 권보다,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책 한 권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한**



제목 《위기의 아이들-사고력을 잃어버린 아이들, 그 원인과 대책은?》
 저자 Jane M. Healy
 출판사 A Touch Stone Book

삶의 목적지가 아닌 원점으로 돌아가라

한은미 | 번역가

어떤 일이 몹시 꼬이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는 충고를 종종 듣곤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원점, 인류문명의 원점은 과연 어디일까. 이 책은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왔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소개할 이 책은 문명의 혜택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한 일본작가의 눈을 통해 본 이 세상의 모습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다져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류의 원점을 찾아 떠나는 여행’ 썬이 될까.

작가 소노 아야코는 문인으로서의 물론 해외 선교사 활동 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을 정도로 선교활동에 적극적인 작가이다. 그녀는 빈민층과 소외계층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으며 문학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승화시킨 작가이기도 하다. 2000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헬렌켈러 풀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계로록戒老錄 : 늙음을 경계하는 글》을 들 수 있겠다. 이 책은 그녀가 41세에 처음 썼는데 51세와 65세 때 수정, 가필되어 일본에서 장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또 다른 저서 《누구를 위해 사랑하는가》는 400만 부가 넘게 팔려 초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원점原點을 바라보며》에서 그녀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아메리카 등지의 오지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지구상의 극빈자極貧者들을 만나며 느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들이 ‘원점 여행’의 발원지라 할 수 있다.

그때 그녀가 경험한 것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 가령 ‘가난’이란 ‘오늘 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뜻하고, ‘중오’란 ‘삶에 대한 정열의 또 다른 이름’이며, 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라는 것 등이다.

또한 매 끼니 걱정을 하면서도 개를 키우는 이유는 학교에도 못 가고 장난감의 해

Japanese



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개들이 유일한 ‘장난감’ 이기 때문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놀라움이 지나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렇듯 이 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온 수많은 혜택을 당연시 여기며 감사할 줄 몰랐던 안일하고 나태한 삶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곤 하지만 우리 삶의 출발지인 ‘원점原點’으로 되돌아가보는 일은 드문 것 같다. 저자와 함께 떠나는 ‘원점으로의 여행’은 문명의 혜택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색다른 묘미를 선사해 줄 것 같다.

“사물을 비추어줄 전등은 물론 아무 목표물도 없는 광야와 사막에서 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 가지는 내가 출발한 지점에 놓아두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발밑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출발 지점을 마음 깊이 새기며 늘 기억해야 한다. 자기 삶의 원형原型과 출발 지점의 풍경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지식으로서라도 알아 두어야 한다. 삶의 목적지만 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본문 중에서) **한은미**



제목 《원점原點을 바라보며》
저자 소노 아야코(曾野綾子)
출판사 쇼덴샤

최대한 일 적게 하고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법

조정훈 | 번역가

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짧은 시간에 떼돈 벌기, 젊은 나이에 대기업 임원이 되기, 명예퇴직후 식당을 차려 수십 개 체인점을 거느린 기업가로 성장하기, 심지어는 열두 살에 부자가 된 꼬마의 이야기 등등... 경제경영서라는 이름이 붙은 책들은 한결같이 바늘구멍을 통과한 특별한 낙타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니면 무능하고, 게으르고, 패배주의에 빠진 평범한 샐러리맨들이 하루아침에 체질과 생활습관과 정신상태를 바로잡아 성공에 이르는 비법들을 설파한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다. '화려한 성공'은 커녕 잘리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 받으며 버티는 것조차도 이 시대의 샐러리맨들에게는 얼마나 버거운 일인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며, 능력을 시험당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받으며, 오래 버틸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책이 있다면 어떨까? 화려한 성공의 비결을 담은 소수를 위한 책들보다 한결 현실적이고 눈에 들어오는 참된 '처세'의 기법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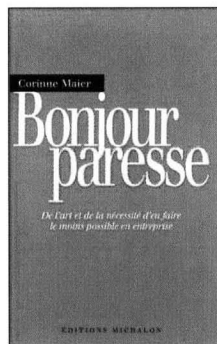
프랑스에서는 아주 우스운 계기를 통해 이런 책 한 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코린 마이에르의 《안녕? 게으름이여 Bonjour Paresse》라는 책이다. 부제가 말해 주듯 '회사에서 가능한 한 티 나지 않게 농땡이 부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회사 매출이나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부서에 지원하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책임이 많이 따르는 일은 사양하라, 파일 문치를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바쁜 척하라, 임시직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그들은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력들이다." 이것이 글쓴이가 가르쳐주는 게으른 직장인의 처세법이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토록 황당한 처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경쟁력을 잃어버린 채 관성에 빠진 프랑스 대기업 시스템에 대한 환멸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프랑스 대기업의 사무직 노동자들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의사 결정과 아이디어는 소수의 경영진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중간관리자들은 사장의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에 그친다. 경영자들은 직원들에

French

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며 중요 정보는 늘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다. 대기업 간부직은 몇몇 유명 대학의 동문들이 독점하면서 중간간부들은 승진하려는 의욕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직원들은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고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소일할 수밖에 없다. 지은이는 직장을 통해 자기성취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철저히 거짓말임을 신랄한 어법으로 간증한다. 그리고 기업 이데올로기의 환상에 취해 있는 샐러리맨들에게 충고한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면 파트타임으로 적당히 돈을 벌면서 정원이나 가꾸며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은 조금 우스운 경로를 통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지은이 코린 마이에르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공사에 속하는 EDF에서 12년 동안 경제분석가로 일했다. 이 책은 초판 4,000부에 그치며 별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EDF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그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노조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언론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책의 가치가 새로이 평가되고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책은 지금 베스트셀러를 넘어 프랑스적 기업문화와 비효율적 시스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20세기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유효한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



제목 《안녕? 게으름이여 Bonjour Paresse》
저자 코린 마이에르 Corinne Maier
출판사 미살롱 Michalon

연극계 표현주의 혁명 일으킨 스트린드베리의 천국과 지옥

홍재용 |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연구원

《꿈의 연극Ett Dromspel》이라는 이 희곡은 ‘스웨덴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August Strindberg, 1849~1912)의 작품이다. 세계 연극의 극작과 공연에 표현주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받는 이 작품이 1902년 책으로 출판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시의 무대기술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희곡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1907년 스웨덴 연출가인 빅토르 카스테그렌이 처음으로 연출을 시작한 이래, 막스 라인하르트, 잉마르 베르히만을 거쳐 현재 로베르 르빠주, 로버트 윌슨 등 세계적인 연출가들이 이 작품의 무대연출을 시도했다.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연출의 묘미가 무궁무진해서 연출가들이 가장 시도해보고 싶은 희곡 작품으로 손꼽히는《꿈의 연극》은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에 공연된 횟수만도 이전 90년보다 많을 정도로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다.


1901년 노르웨이의 젊은 여배우인 하리에트 보세와 결혼한 스트린드베리는 동양적인 이미지를 지녔던 보세를 위해 《꿈의 연극》을 썼다. 보세의 모습에 어울리는 캐릭터로 힌두교 신화에 등장하는 ‘인드라’라는 신의 딸을 선택할 정도로 보세에 대한 사랑을 《꿈의 연극》에 쏟아 부었지만, 1904년 보세와 비극적인 결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스트린드베리는 《꿈의 연극》을 가리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희곡’이라고 말할 정도로 커다란 애착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꿈의 연극》은 최근 스웨덴에서 발표된 베스트셀러 20선에서 1위를 할 정도로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스웨덴 국민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작품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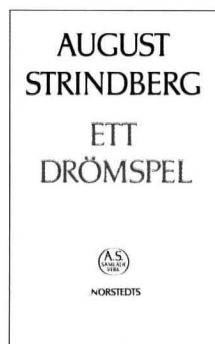
마치 중세의 종교적 도덕극의 양식을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인드라’라는 신의 딸(아그네스, Agnes)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 가장 어둡고 억압된’ 지구에서의 불행한 인간생활을 경험하고 다시 그녀의 아버지에 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아그네스는 지구에 내려와 ‘커지는 성’에 갇혀 있는 ‘장교’를 구출해 주기도 하고, ‘변호사’와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지만 가난과 추위에 쪼들리는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고, 신의 계시를 갈망하는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철학적으로 성숙해 간다.

Scan dinavian

아그네스가 지구에서 만난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은 한 몽상가의 의식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작품에 나타나는 장소는 마치 꿈속에서 방황하듯 장면변화가 빠르고 한 장면 속에서 ‘장교’가 갑자기 늙어 버리는 등 기존의 시간 관념을 초월하고 있다. 스트린드베리는 기억, 감정, 직관, 부조리, 즉흥적인 사고 등의 단편으로 장면을 구성함으로써 인간 경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사실주의적인 인간 모습의 묘사를 지양하고 인간의 내적인 무의식 세계를 묘사함으로써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순수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1901년 출판되어 인간의 내적인 무의식 세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던 것처럼, 1년 뒤에 출판된 스트린드베리의 《꿈의 연극》도 역시 인간의 심리적 현실과 무의식을 문학작품 속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본보기가 되었다. 《꿈의 연극》은 신의 상실, 정신적인 방황, 인간의 소외와 실존적인 고뇌를 심도 있게 묘사하는 표현주의 작품들에 큰 자극이 되었다.

스트린드베리를 ‘가장 위대한 현대 극작가’로 생각했던 손 오케이는 입센과 스트린드베리 두 작가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기도 했다. “입센은 조용히 그의 《인형의 집》에서 쉴 수 있지만 스트린드베리는 천국과 지옥을 상대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제목 Ett Dromspel(꿈의 연극, A Dream Play) .
저자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August Strindberg)
출판사 Norstedts(Stockholm)